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아동학대실태

-울산광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박혜원, 김영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 전공)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아동학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학대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350명), 중학생(241명), 고등학생(120명)을 대상으로 신체적(10문항), 언어적(10문항), 정서적 학대(5문항) 및 방임(10문항)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대의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여아에 비해 남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훈육을 받고 있으며 심한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아동 방임의 경우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 종교 그리고 직업에 따른 아동학대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아동방임의 경우 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가정의 경우 93.9%가 친부모를 둔 것으로 보고되어 우리나라 평균보다 안정된 가정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정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